

May 2026  
No. 382

# INSS

## 전략보고

### 북한의 다극세계 건설론: 개념, 의도, 전망

이상근  
sang1617@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과 다극세계
- III. 다극세계 건설 강조 의도
- IV. 전망 및 시사점

# 북한의 다극세계 건설론: 개념, 의도, 전망

## I. 문제 제기

---

## II.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과 다극세계

---

1. 다극화와 신냉전
2. 다극세계
3. 중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 III. 다극세계 건설 강조 의도

---

1. 대미 대결 노선 정당화
2. 대러 밀착 정당화 및 공고화
3. 대외적 입지 및 위상 강화
4. 독자적 극 형성 가능성 모색

## IV. 전망 및 시사점

---

# 북한의 다극세계 건설론: 개념, 의도, 전망

저자 | 이상근

## 국문 초록

북한은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 일극 질서를 비판하고 다극화 흐름을 강조해 왔으며 근년에는 다극세계 건설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은 다극세계를 지배와 예측, 패권과 강권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이자 역사발전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로 규정한다. 북한의 다극세계 개념은 탈냉전 이후 종러, 특히 러시아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극세계 개념을 적용하여 현존 국제질서와 그 변화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대결을 지속하는 기존 외교·안보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 다극세계 건설의 동반자임을 내세워 종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종러에의 종속을 회피하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을 자처함으로써 북한을 종러와 대등한 위치로 추켜세우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 사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동조세력을 확보하는 것도 북한의 노림수인 것으로 보인다. 전략국가임을 자부해온 북한은 다극세계가 실현되면 스스로 하나의 극을 형성하여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향후 다극세계 개념을 적극 활용하면서 종러와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종러 주도 다자기구에 옵서버 등으로 참여하거나 북종러 3자 연대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더라도 군사력 외에는 전반적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이 되기는 어려우며 다극질서 수립을 주도하는 종러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극세계 건설론은 북미의 대결적 관계를 고착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을 주도하는 강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협상 등에 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주제어: 북한 외교, 북한 대외관계, 다극화, 북미관계, 북러관계, 북중관계, 글로벌 사우스, 신냉전

## I 문제 제기

- 북한은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 일극 질서를 비판하고 다극화 흐름을 강조해 왔으며 근년에는 다극세계라는 대안적 국제질서의 건설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
  - 2026년 2월 9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다극세계 건설이 더욱 추동될 것”이라며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 있다”라고 선언<sup>1</sup>
- 북한이 건설하겠다는 다극세계(multi-polar world)는 국제관계 이론에서 사용되는 다극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 양자 간의 내용상 차이가 상당
  - 다극세계가 몇몇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세계질서라면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가능성 다대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북한이 어떤 이유로 다극세계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중심 역할을 자임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 이를 위해 북한이 주창하는 다극세계가 어떤 개념인지, 중리가 주장하는 다극화 및 다극세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
  -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국가를 자임하고 나선 북한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그러한 행보가 북한의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망도 제시

1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6년 2월 26일.

## II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과 다극세계

### 1. 다극화와 신냉전

-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를 비판하기 위해 다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신냉전 개념도 동원<sup>2</sup>
  - 국제질서에 대한 북한의 담론 속에서 일극, 다극, 신냉전은 논리적으로 밀접히 연결
- 북한은 다극화를 “국제관계가 민주화되는 과정으로서 역사의 전진”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극화는 국제관계의 파쇄화를 노린 것으로서 역사의 반동”이라고 규정<sup>3</sup>
  - “다극화세력과 일극화세력 사이의 첨예한 갈등과 모순”이 새로운 냉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며, 다극화 추세로 인해 “유일 초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미국이 긴장을 격화시켜 새로운 냉전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sup>4</sup>
- 2021~2022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세계질서가 이미 신냉전 구도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표출
  - 2021년 9월 14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진단<sup>5</sup>
  - 2022년 12월 8기 6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었다고 언명<sup>6</sup>

2 박아름, “북한의 탈단극 인식: ‘다극’화와 ‘신냉전,’” 『동북아연구』, 제41권 제1호 (2026), pp. 94-96, 103; 전재성, “북한의 다극화 국제질서 담론의 전략적 모호성,” EAI 「GLOBAL NK」, 2026년 2월 2일, p. 4.

3 “《새로운 냉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 조선중앙통신, 2008년 6월 7일.

4 위의 글.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 2023년부터 신냉전 용어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북한은 일극 질서를 고수하려는 세력과 다극화를 지향하는 세력 간의 충돌로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었다는 인식을 유지<sup>7</sup>
  - 이념적 대결에 근원을 둔 제한된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었던 냉전과 달리 신냉전은 “세계적 범위에서 낡은 질서를 고집하는 세력과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광범한 나라들과의 대결”이라는 입장도 고수<sup>8</sup>
- 근년에 북한이 신냉전 개념 사용에 소극적인 것은 주요 우방이자 강대국인 중러가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신냉전 도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신냉전과 같은 본격적인 대미 대결구도 형성을 피하려 하며 반미세력의 진영 형성에도 회의적<sup>9</sup>
  - 러시아는 냉전에서 패배했다는 트라우마를 되살릴 수 있는 신냉전 개념을 선호하지 않으며 냉전과 유사한 양대 진영 간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될 것을 우려<sup>10</sup>

## 2. 다극세계

- 북한은 신냉전 용어 사용을 줄인 뒤에도 다극화는 더욱 빈번히 언급하였고 다극세계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세계질서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활용
  - 김정은 집권 후인 2012~2022년에는 노동신문에서 다극화와 다극세계가 간헐적으로만 언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언급 빈도가 크게 증가<sup>11</sup>
- 북한이 다극화와 다극세계를 다시 강조하게 된 계기는 2022년 말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연설
  - 김 위원장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국제정세를 진단<sup>12</sup>

7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15일.

8 위의 글.

9 이동률,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쟁점,” EAI 「GLOBAL NK」, 2023년 2월 27일.

10 장세호,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EAI 「GLOBAL NK」, 2023년 3월 23일.

11 Sang Hun Seok, “Crafting a Multipolar World: Pyongyang’s Evolving Narratives,” *The RUSI Journal*, Vol. 170, No. 3 (2025), p. 77; 박아름, “북한의 탈단극 인식,” pp. 95-96.

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국력이 약화된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에 걸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런 진단의 배경인 것으로 평가
  - 2021년에 단행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였을 것으로 추정
- 다극세계에 대한 북한의 설명에는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다극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극세계는 소수 강대국만이 극을 형성하는 세계가 아니라 약소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연대하여 다수의 극을 중첩적으로 형성하는 국제질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다극화의 증거로 중러 주도 다자기구들의 역할 증대와 함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아세안 국가들의 연대를 드는 것으로 보아 강대국만이 아니라 지역 국가들의 협력체 등도 독자적인 극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추정<sup>13</sup>
- 북한은 다극세계를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로 규정<sup>14</sup>
  -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 리의 존중, 국제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 등의 성격을 띤 국제체계로도 묘사<sup>15</sup>
- 국제관계 이론상 일극체제, 양극체제와 더불어 다극체제는 국가 간 세력 분포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데 반해 북한은 다극세계를 역사발전 법칙에 따라 일극세계를 대신하여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될 국제질서로 규정
  -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인류의 지향에 따라 ... 반제자주력량과 제국주의세력 간의 모순과 대결은 필연코 격화”된다고 주장<sup>16</sup>
  - 이러한 대결의 과정에서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힘이 점점 더 강해져서 다극세계로 이행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라고도 설명<sup>17</sup>

13 박진향, “세계는 다극화로 더욱 활력있게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25일; 은정철, “자주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흐름,” 『로동신문』, 2024년 1월 7일; 김수진,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남남협조,” 『로동신문』, 2024년 1월 19일.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젠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20일.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20일.

16 박진향, “서방에 의해 가중되는 전쟁위험은 무엇을 새겨주는가,” 『로동신문』, 2025년 8월 24일.

17 리경수, “투철한 반제자주에 정의로운 새 세계가 있다,” 『로동신문』, 2025년 8월 6일; 은정철,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천

- 김정은 위원장도 9차 당대회에서 “자주와 평등,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진보적 인류의 지향”이 “패권세력의 발악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렬해지게” 되는 것이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며 필연성”이라고 주장
  - 계속 강해지는 자주역량의 투쟁에 의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이 더욱 추동될 것”이라고도 단언<sup>18</sup>

### 3. 중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 북한은 탈냉전 후 중러, 특히 러시아의 영향을 받으며 다극세계 개념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장쩌민 주석이 1992년 중국공산당 14차 대회에서 다극세계(*duoji shijie*) 개념을 외교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미국이 이끄는 일극세계에 대한 대안적 질서로 제시<sup>19</sup>
  - 러시아는 1997년 중국과 “다극세계와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2000년에 ‘대외정책 개념’에서 다극질서를 언급한 뒤 다극질서의 당위성을 점점 더 강조해 왔으며, 2023년에는 ‘대외정책 개념’에 다극적 국제체계 형성을 역사적 사명으로 명기<sup>20</sup>
- 중러는 견제받지 않는 유일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현존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극세계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북한도 이런 인식을 공유
  - 북한은 서방이 강조하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위선적이며 서방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패권 유지의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도 중러와 인식을 같이함<sup>21</sup>

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로동신문』, 2025년 10월 19일.

- 18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즐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6년 2월 26일.
- 19 Susan Turner, “Russia, China and a Multipolar World Order: the Danger in the Undefined,” *Asian Perspective*, Vol. 33, No. 1 (2009), p. 168; Vinod Khanna,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and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Report*, Vol. 29, No. 1 (1993), p. 85.
- 20 China and Russian Federation, “Letter dated 15 May 1997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1997),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234074?v=pdf#files> (검색일: 2026년 4월 6일);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h 31,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fundamental\\_documents/1860586/](https://mid.ru/en/foreign_policy/fundamental_documents/1860586/) (검색일: 2026년 4월 6일); 민지영, “러시아의 다극주의 전략과 북·러 관계,” 『외국학연구』 제73집 (2025년 9월 30일), pp. 594-596.
- 21 장세호, “러시아의 대외정책: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의 경향과 특성,”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2024년 2월 26일, p. 8; 전재성, “북한의 다극화 국제질서 담론의 전략적 모호성,” p. 8; 김명철, “미국의 배타적리익을 절대시하는 《미국우선주의》는 전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25년 3월 15일; 은정철, “국제관계

- 중러는 다극세계를 몇몇 강대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국제체제로 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공정한 국제질서라고 주장해 온바, 이 역시 북한의 다극세계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sup>22</sup>
  - 북한이 강대국인 중러가 제시한 다극세계 개념을 수용한 것은 중러가 단순히 극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정한 국제질서 형성을 내세웠기 때문
- 북한은 다극세계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 러시아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입장 차가 뚜렷
  - 러시아는 다극세계 건설을 위한 비서방 세력의 결속을 중시하고 필요하면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이에 동조<sup>23</sup>
  - 반면 중국은 북러가 미국 패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간주하는 유럽까지도 다극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서방과의 세력 대결을 피하려 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관계 준칙 준수를 통한 ‘질서있는’ 다극화를 강조<sup>24</sup>
- 세계질서를 일극을 유지하려는 소수 국가들과 다극세계를 실현하려는 다수 국가들 간 신냉전적 대결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신제국주의론에 기초한 북한의 독특한 입장<sup>25</sup>
  - 러시아도 서방과 비서방(세계다수, world majority)의 관계를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규정하지 만 세계질서를 양대 세력 간의 신냉전적 대결구도로 설명하지는 않음<sup>26</sup>

의 새로운 변천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 22 한종구·정성조, “대미비판’ 줄이고 톤 낮춘 中왕이…‘세계 다극화’는 한층 강조,” 연합뉴스, 2026년 3월 8일; 임지우, “푸틴 ‘중러관계 역대최고, 더 강해져…세계질서 다극화 공동추진’(종합2보),” 연합뉴스, 2024년 5월 15일.
- 23 장세호, “러시아의 대외정책,” p. 9; 전재성, “북한의 다극화 국제질서 담론의 전략적 모호성,” p. 8.
- 24 이동률, “중국 2024 양화: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EAI 이슈브리핑』, 2024년 3월 14일, pp. 3-4; 한종구·정성조, “대미비판’ 줄이고 톤 낮춘 中왕이…‘세계 다극화’는 한층 강조,” 연합뉴스, 2026년 3월 8일.
- 25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리경수, “투철한 반제자주에 정의로운 세계가 있다,” 『로동신문』, 2024년 6월 8일; 박진향, “변할수 없는 침략야망의 산물-신제국주의론,” 『로동신문』, 2024년 11월 3일.
- 26 장세호, “러시아의 대외정책,” pp. 9-10.

- 다극세계의 도래를 역사발전 법칙에 따른 필연으로 규정하는 것도 종러와는 구별되는 북한만의 특징
  - 러시아도 미국 중심 일극 질서의 이완 및 붕괴가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과정이라고 보지만 북한은 이를 역사발전 법칙으로까지 연결<sup>27</sup>
  - 북한은 유일 초강대국의 횡포가 강해질수록 패권에 반대하는 인류의 투쟁이 강화되어 다극세계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기인한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법칙과 논리구조가 유사

---

27 위의 글.

### III 다극세계 건설 강조 의도

#### 1. 대미 대결 노선 정당화

- 북한은 다극세계 개념을 적용하여 현존 국제질서와 그 변화 방향을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 기존 외교·안보노선을 정당화
  - 다극세계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화 서사’를 통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대결을 지속하는 정책노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나름의 세계관 및 역사관을 제시<sup>28</sup>
- 기존 국제질서를 “미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세계의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군사적 강권과 전횡”을 서슴지 않는 일극세계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의 정책들에 정당성을 부여<sup>29</sup>
  - 다극세계를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안적 국제질서이자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로 규정함으로써 현존 국제질서를 대체할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자신감을 고취<sup>30</sup>
  - 다극세계 건설을 자주와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가 이러한 투쟁의 중심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북한 외교·안보노선을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화<sup>31</sup>
- 북한이 홀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이단아가 아니라 중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동일한 대의를 추구하는 행위자라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대외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과시하는 데에도 다극세계 개념을 활용
  -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이 북한과 함께 미국에 맞서 공정하고 평등한 다극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sup>32</sup>
  -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유라시아경제연합 등을 “미국의 일극화 책동”에 맞서 새로운 극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체이자 다극세계 건설의 주요 역량이라고 평가하며 이 기구들에 대한 지지 표명<sup>33</sup>

28 Sang Hun Seok, “Crafting a Multipolar World: Pyongyang’s Evolving Narratives,” *The RUSI Journal*, Vol. 170, No. 3 (2025), pp. 74-82.

29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 조선중앙통신, 2014년 8월 10일.

30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6년 2월 26일.

31 위의 글.

32 박명호, “국제적정의와 공평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나라사이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5년 9월 1일.

## 2. 대러 밀착 정당화 및 공고화

- 북한은 다극세계 건설을 중러와의 연대의 명분으로도 삼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
  - 2024년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제6조에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된”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북러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명기<sup>34</sup>
  - 김정은 위원장은 “지배와 예측, 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된 새 세계 창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리라는 것을 동 조약의 주요 의의 중 하나로 제시<sup>35</sup>
  -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북러 동맹관계가 “정의롭고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입장 표명<sup>36</sup>
-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며 ‘특수’를 누려온 북한은 북러밀착을 장기화,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다극세계 개념을 이용
  - 북러 친선관계를 영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양국의 동지적 관계가 다극세계 건설의 “보루”, “견인기”, “원동력”이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다극세계 건설에 북한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sup>37</sup>
  - 김정은 위원장은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을 기리는 해방탑을 찾아 북러의 80여 년에 걸친 유대가 “다극화된 새 세계 창설을 추동하는 무진한 힘”이라며 북러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이 굳건히 계승·발전될 것이라고 강조<sup>38</sup>

33 “다극세계의 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4월 22일; “협력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 『로동신문』, 2025년 7월 4일.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20일.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원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20일.

3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5년 10월 7일.

37 오수진, “주북 러대사관, 북러조약 비준 연회…최설희 “관계 영속발전,” 연합뉴스, 2024년 1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결과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보좌실 공보,”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20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부원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 『로동신문』, 2024년 6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8월 15일; 하채림, “방러 북한군 대표단장 “다극화 세계질서 수립 기여가 정부입장,” 연합뉴스, 2025년 5월 2일; 오수진, “북국가보위상 “美패권정착이 국제평화 허물어…힘으로 대응,” 연합뉴스, 2025년 5월 30일.

3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9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8월 16일.

### 3. 대외적 입지 및 위상 강화

-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을 자임하는 것은 세계질서 변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등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
  - 다극세계 건설의 동반자임을 내세워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맞서는 동시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대국인 중러에의 종속 내지 과도한 의존은 회피<sup>39</sup>
- 다극세계 건설을 앞장서 외침으로써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은 국가들 사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동조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북한의 노림수
  -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며 다극세계가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미·반제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 발신<sup>40</sup>
  - 동시에 “평등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려는 모든 나라들은 서방의 일방적 강압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등 비서방 국가들이 서방에 맞설 것을 호소<sup>41</sup>
- 중러가 다극세계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북한이 근년에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을 자처하는 모습에서 자국이 중러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임
  - 북한은 다극화된 세계질서가 미국의 쇠퇴와 몰락 속에 창설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의 강권과 전쟁 책동에 맞서나가고 있는 강국들” 중 하나라고 평가<sup>42</sup>
  - 김정은 위원장도 2024년 12월 8기 11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역량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라고 자평<sup>43</sup>

39 이재영,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제1차 회의 분석(5): 대외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6년 3월 26일, p. 5.

40 박명호, “국제적정의와 공평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나라사이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5년 9월 1일.

41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일방적강압조치는 철폐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5년 12월 20일.

42 박진향, “무모한 대결광증이 오히려 쇠퇴몰락을 촉진한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8일.

4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4년 12월 29일.

#### 4. 독자적 극 형성 가능성 모색

- 전략국가임을 자부해온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을 자임하는 것은 다극세계가 실현될 경우 스스로 하나의 극을 형성하여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일 가능성 배제 불가
  - 다극세계 건설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는 영향력 있는 국가임을 과시하면 향후 다극세계를 구성하는 극들 중 하나로 부상할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
- 북한이 다극세계에서 하나의 극이 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은 없으나 다극세계 건설을 이끄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국가라고 자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스스로 하나의 극을 형성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
  - 근년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국가와 위협당하는 국가가 아닌 대등한 전략국가(핵보유국) 간 관계로, 중러와의 관계도 대국과 소국이 아닌 대등한 강국 간 관계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sup>44</sup>

4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6년 3월 24일; 최용환·이기동,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INSS 전략보고』, 제222호, 2023년 9월 26일, p. 6; 이상근,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전망,” INSS 『이슈브리프』, 제811호, 2026년 3월 4일, pp. 5-6.

## IV 전망 및 시사점

- 북한은 향후 다극세계 개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등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해지는 한편 중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현 상황을 다극세계 건설론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장의 호기로 판단할 가능성 다대
- 다극세계 건설을 명분으로 북러밀착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다극세계 건설의 또 다른 주역인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 위원장이 2026년 3월 23일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장기적, 전략적 국익 보장의 원칙에서 ... 외교적 우선권을 재조정, 재정의”할 것을 공언한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종전 등을 대비하여 북중관계를 북러관계 못지않게 강화·발전시키려 할 가능성 배제 불가
- 김 위원장은 2026년 4월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조중친선관계를 가장 귀중히 하고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겠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공언<sup>45</sup>
  - 김 위원장이 2023년 9월 1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로관계를 최종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북러밀착이 본격화했던 바 있으므로 향후 북중 교류·협력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sup>46</sup>
- 북한은 미국의 패권에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이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구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 친중·친러국가인 미얀마와 벨라루스, 대표적 반미국가인 이란과 니카라과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회복 중인 쿠바와의 관계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4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6년 4월 11일.

4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원동지와 회담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년 9월 14일.

- 다극세계 건설을 내세워 협소한 대외관계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아세안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이 큰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과의 교류·협력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측
  - 최근 북한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를 새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등을 기대하며 다극화의 증거이자 동력으로 규정해 온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중러 주도 다자기구에 참여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7조에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바, 러시아는 북한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북한의 정회원 가입은 어려울 것이나 옵서버 등으로의 참여 가능성은 상당
  
- 북중러가 모두 다극세계 건설을 추구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북한이 북중러 3자 연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회의적 태도로 인해 북중러 연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북한이 이를 장기적 목표로 추진할 가능성 배제 불가
  - 북한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군이 중러 견제 역할도 수행하라는 미국의 압력 증가 등을 내세워 중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다극세계 건설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다극질서 수립을 주도하는 중력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 다대
  - 핵전력을 비롯한 군사력은 상당하나 경제력, 외교력, 소프트 파워 등의 측면에서 기존 질서를 재편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 같은 이유로 향후 다극질서가 형성되더라도 북한이 하나의 극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음

- 운영자금 부족으로 재외 공관을 대거 철수했던 2023년에 비해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나 다극세계 건설을 명분으로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는 것 자체가 힘에 부칠 가능성도 상당
  - 지난 3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정상 운영 등을 위한 국가 수입 확대가 절실하다고 토로<sup>47</sup>
  - “국익 도모에 가장 합리적인 외교력량 배비 구도를 편성하고 부단히 조정향상”할 필요성도 지적한바, 이는 외교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므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뒤 필요에 따라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미<sup>48</sup>
  
- 북한이 다극세계 건설을 강조하면서도 대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미국 중심의 불공정한 일극세계를 무너뜨리고 다극세계를 건설하겠다는 담론은 북미관계를 대결적 관계로 고착시키는 효과가 작지 않으나 새로운 대미관계 구축을 뒷받침할 논리를 제공할 여지도 충분
  
- 북한은 향후 미국의 핵 위협을 받는 약소국이 아닌 다극세계 건설을 주도하는 강국이자 전략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 강국이자 전략국가라는 북한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핵의 포기가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의 동결이나 감축은 ‘상호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 있음

4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6년 3월 24일.

48 위의 글.

## 참고문헌

- 김명철. “미국의 배타적리익을 절대시하는 《미국우선주의》는 전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25년 3월 15일.
- 김수진. “세계의 다극화를 추동하는 남남협조.” 『로동신문』, 2024년 1월 19일.
- 리경수. “투철한 반제자주에 정의로운 새 세계가 있다.” 『로동신문』, 2025년 8월 6일.
- 박명호. “국제적정의와 공평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나라사이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5년 9월 1일.
- 박아름. “북한의 탈단극 인식: ‘다극’화와 ‘신냉전.’” 『동북아연구』, 제41권 제1호 (2026), pp. 92-122.
- 박진향. “무모한 대결광증이 오히려 쇠퇴몰락을 촉진한다.” 『로동신문』, 2024년 12월 28일.
- 박진향. “변할수 없는 침략야망의 산물-신제국주의론.” 『로동신문』, 2024년 11월 3일.
- 박진향. “서방에 의해 가증되는 전쟁위험은 무엇을 새겨주는가.” 『로동신문』, 2025년 8월 24일.
- 박진향. “세계는 다극화에도 더욱 활력있게 나아가고 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25일.
- 민지영. “러시아의 다극주의 전략과 북·러 관계.” 『외국학연구』 제73집 (2025년 9월 30일), pp. 587-622.
- 오수진. “주북 러대사관, 북러조약 비준 연회…최설희 “관계 영속발전.” 연합뉴스, 2024년 12월 11일.
- 오수진. “北국가보위상 “美패권정책이 국제평화 허물어…힘으로 대응.” 연합뉴스, 2025년 5월 30일.
- 은정철.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천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로동신문』, 2025년 10월 19일.
- 은정철. “자주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 『로동신문』, 2024년 1월 7일.
-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15일.
- 이동률. “북한의 ‘신냉전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썬법.” EAI 「GLOBAL NK」, 2023년 2월 27일.
- 이동률. “중국 2024 양회: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EAI 이슈브리핑」, 2024년 3월 14일.
- 이상근.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전망.” INSS 「이슈브리프」, 제811호, 2026년 3월 4일.
- 이재영.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제1차 회의 분석(5): 대외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6년 3월 26일.
- 임지우. “푸틴 “중러관계 역대최고, 더 강해져…세계질서 다극화 공동추진”(종합2보).” 연합뉴스, 2024년 5월 15일.
- 장세호. “러시아의 대외정책: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의 경향과 특성.”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2024년 2월 26일.

장세호. “북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EAI 「GLOBAL NK」, 2023년 3월 23일.

전재성. “북한의 다극화 국제질서 담론의 전략적 모호성.” EAI 「GLOBAL NK」, 2026년 2월 2일.

최용환·이기동.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INSS 전략보고」, 제222호, 2023년 9월 26일.

하채림. “방러 북한군 대표단장 “다극화 세계질서 수립 기여가 정부입장.” 연합뉴스, 2025년 5월 2일.

한중구·정성조. “대미비판’ 줄이고 톤 낮춘 중앙이…‘세계 다극화’는 한층 강조.” 연합뉴스, 2026년 3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동지와 회담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년 9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8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5년 10월 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왕의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6년 4월 1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9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8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6년 3월 24일.

“다극세계의 수립을 지향하여.” 『로동신문』, 2024년 4월 22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뿌쨌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 『로동신문』, 2024년 6월 18일.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즐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6년 2월 26일.

“세계의 다극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 조선중앙통신, 2014년 8월 10일.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일방적강압조치는 철폐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5년 12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4년 12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결과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보좌실 공보.”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20일.

“협력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 『로동신문』, 2025년 7월 4일.

“《새로운 랭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 조선중앙통신, 2008년 6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췌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20일.

China and Russian Federation. “Letter dated 15 May 1997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1997),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234074?v=pdf#files> (검색일: 2026년 4월 6일).

Khanna, Vinod.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and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Report*, Vol. 29, No. 1 (1993), pp. 85-9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h 31,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fundamental\\_documents/1860586/](https://mid.ru/en/foreign_policy/fundamental_documents/1860586/) (검색일: 2026년 4월 6일).

Seok, Sang Hun. “Crafting a Multipolar World: Pyongyang’s Evolving Narratives.” *The RUSI Journal*, Vol. 170, No. 3 (2025), pp. 74-82.

Turner, Susan. “Russia, China and a Multipolar World Order: the Danger in the Undefined.” *Asian Perspective*, Vol. 33, No. 1 (2009), pp. 159-184.

## Abstract

## Why Does North Korea Claim to Play a Central Role in Building a Multipolar World?

Sangkeun L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expressed its determination to lead the construction of a multipolar world. North Korea defines the multipolar world as an equal and fair international order, and as a future that will inevitably arrive according to the laws of historical development. North Korea's concept of a multipolar world appears to have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China and Russia. North Korea applies the concept of a multipolar world to justify its existing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that continue confrontation with the U.S.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by asserting that they are partners in building a multipolar world. At the same time, it appears to be employing a strategy to avoid subordination to China and Russia by emphasizing the need to pursue an equitable and just multipolar world. It is also North Korea's strategy to elevate itself to a position equal to China and Russia by claiming to be the center of the construction of a multipolar world, and to strengthen its standing among countries dissatisfied with the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North Korea, which has prided itself on being a nuclear power, seems to harbor the expectation that it could form one of the poles itself if a multipolar world is realized. North Korea is expected to actively utilize the concept of a multipolar world to consolidat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as well as strengthen relations with the Global South.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it may participate as an observer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 led by China and Russia, or attempt to build a trilateral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Even if these moves materialize, North Korea, lacking overall capabilities other than military power, will not be able to play a central role in building a multipolar world. While the concept of a multipolar world has the effect of

solidifying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t also has the potential to provide a rationale for North Korea to engage in negotiations on equal footing with the U.S. as a powerful nation leading the construction of a multipolar world.

Keywords: North Korean foreign policy, multipolarization, multipolarity, North Korea-U.S. relations, North Korea-Russi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Global South, New Cold Wa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INSS

## 전략보고

May 2026  
**No. 382**